

베네치아의 출판

16세기에 유럽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던 곳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였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베네치아의 출판업은 경제의 다각화와 우수한 장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던 데 힘입었다. 당시의 언론자유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고, 그런 면에서 베네치아는 로마나 파리보다도 더 자유로웠다.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 이야기》(한길사) 가운데, 당시 베네치아 출판의 융성을 마치 현 장보고하듯 기록한 글을 소개한다.

베네치아의 출판업은 경제의 다각화와 우수한 장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됐던 데 힘입었다. 당시의 언론자유란 종교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고, 그런 면에서 베네치아는 로마나 파리보다 더 자유로웠다.

“1495년부터 1497년 사이에 전 유럽에서 1천 821종의 신간서적이 나왔는데 그 중 447종이 베네치아에서 간행되었다. 2위를 차지한 파리는 181종의 신간밖에 내놓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베네치아 출판업계의 전성기로 치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면 그 50년 동안에 베네치아의 113개 출판사가 모두 4천 416종의 신간을 출판했다. 유럽 제1의 출판건수이다.

베네치아 출판계 융성의 원인을 밝히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출판업이란 신간이 많다고 그것만으로 기업으로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판본이 많아야 한다. 이 면에서도 베네치아의 출판계는 단연 앞서 있었다. 50개 이상의 출판사가 20판 이상을 거듭한 책을 가졌고 10개사 이상이 40판 이상을 낸 책을 몇 종류 가지고 있었다. 어떤 출판사는 132판을 거듭한 ‘재산’을 자랑했다.

그는 먼저 아르도사의 심벌 마크를 정했다. 돌고래와 닮은 하나로 묶은 도안이였다. 이 심벌은 독자들에게 출판사 이미지를 깊이 인상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돌고래는 출판되기까지의 속도를, 닮은 내용의 정확성을 상징했다.

...여기서 베네치아 출판계의 기반을 닦은 인물로서 아르도 마누치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런 다음에 소형본의 발매를 시작했다. 대형본은 휴대하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비싼 것이 탈이었다. 소형으로 하니 휴대하기 편할 뿐 아니라 값도 아주 싸졌다.

를 신청하여 인가를 얻어냈다. 그러나 곧 다른 출판사가 너도나도 흉내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찌하였든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독자들의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이다. 아르도 상술의 뛰어난 것은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았다. 전집까지 기획했으니 감탄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전대미문의 아이디어였다. 1480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전집을 냈고, 이어서 호라티우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등으로 전집출판이 잇따랐다. 문법책은 물론이고, 라틴어 대역본까지 내는 친절이었으니, 지식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 상한 일이라 하겠다.

단체와 페트라르카의 전집도 잊지 않았다. 읽을 만한 책은 모두 구색을 갖추어 놓은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출판 카탈로그를 독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했다. 아르도사의 출판 안내지에는 자사가 출판한 것뿐 아니라 같은 저자의 책이면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함께 소개하였다.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권위가 붙어서 책이 더 팔린다면 글쓰는 사람치고 누구라도 무관심할 수는 없다. 에라스무스가 아르도사에 접근한 것은 1507년의 일이었다. 7년 전에 파리에서 출판했던 《격언집》을 아르도사에서 새로이 내기로 한 것은 다음해인 1508년. 이 아르도사 판 《격언집》의 매출실적은 대단한 것이어서 16세기말까지 132판을 거듭하는 최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

그런데 대형본에서 아무 불편이 없었던 고딕 활자가 소형본에서는 읽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르도는 오늘날 우리가 이탤릭이라 부르는 서체를 발명하였다. 이탤릭으로 하면 소형본도 읽기에 불편이 없다.

...아르도사는 소형판과 이탤릭 서체와 하드커버를 한 건으로 묶어서 정부에 특허

출판저널

통권 제187호/1996년 3월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종환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박남정 허연
 한동림 이정민
디자인—윤정자
사진—김지옥

업무부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 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합본호판매안내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최고가 아니면 포기하라”

선수기질이 있는
편집자와 디자이너를
모십니다

대우: 국내 최고의 대우
요건: 국내 최고의 실력
(potential, O.K.)

채용: 1)이력서
2)자기소개서
3)작품목록을 아래
사서함 「인사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th Century Plus
21세기플러스
a publishing Co.
스위스그랜드 호텔 앞
☎(02)395-1945 ☎(02)396-3964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339-2
서울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132호
☎110-611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 1년분(22호분) 30,000원
- * 반년분(11호분) 16,000원